

Toluene, 공급타이트 28달러 상승!

FOB Korea 300-305달러 형성 ... 인천정유 BTX 가동률 30% 감축계획

Toluene 가격은 5월9일 FOB Korea 톤당 300-305달러로 28달러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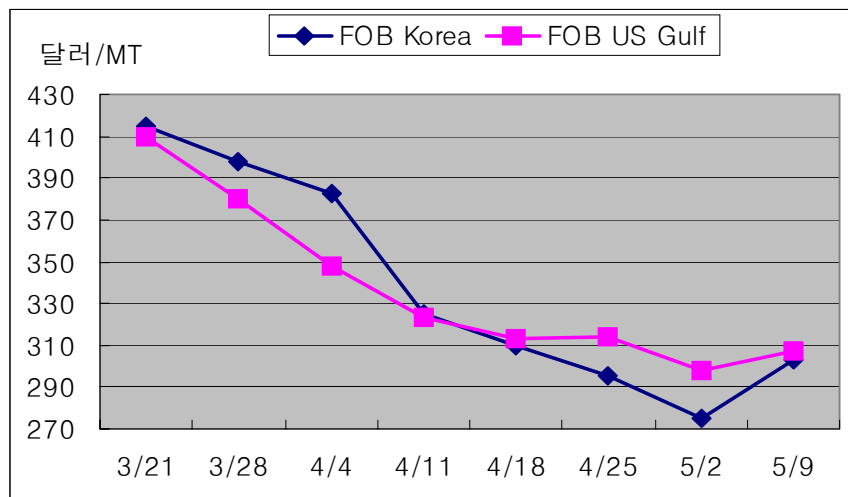
아시아 톨루엔 시장은 국제 원유가격 및 나프타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아시아지역 공급이 타이트해지면서 8주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5월 하순 거래되는 한국산 2000톤은 5월7일 FOB Korea 280-285달러에 무역상에게 판매됐고, 호남석유화학은 Solvent 그레이트 M-X와 함께 1500톤을 FOB Korea 280달러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말에 접어들면서 5월 하순 또는 6월 초순 거래물량 3000톤이 FOB Korea 300달러로 20달러 상승했으며, 일부에서는 305달러에도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톨루엔 수요기업들은 중국의 노동절 연휴(5월 1-5일)로 수요가 박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300달러 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Toluene 가격추이



중국의 톨루엔 가격은 ex-tank 톤당 3000-3050원으로 수입가격 기준 285-290달러를 형성해 아시아 가격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정유는 BTX 및 TDP 플랜트 가동률을 30%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의 톨루엔 가격은 5월9일 FOB US Gulf 갤런당 100.0-102.0센트로 톤당 평균 307달러를 형성해 9달러 상승했다.

<Chemical Journal 2003/05/16>